"30년전 독재시대 항거한 '人山' 지금 다시 그릴 수 밖에 없네요"

23일 광주시립미술관 중견작가초대전을 갖는 이준석 작가가 1984년 작 판화 '인산'을 유화로 다시 그린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작가는 내년 1월29일까지 30년 작품 인생을 선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전 갖는 민중미술작가 이준석씨

'오월그림-가슴마다…'
내년 1월 29일까지
판화·회화 등 40여점 전시

"1980년대 암울했던 시기에는 시대를 비판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기원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시대가 어두운 것 같아 아쉽습니다."

23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난 이준석(58) 작가는 여전히 시대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그는 1980년 조선대 4학년 때 5·18이 일어나자 시위대에 합류해 계엄군에 맞섰고 군 전역 후 판화 작품 '묘지 가는 길'을 제작하면서 민중미술작가 길을 걸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중견작가 초대전으로 5·6전시실에서 '이준석, 오월그림-가슴마다 꽃으로 피어있으라'를 2017년 1월 29일까지 연다.

올해는 지난 30년 동안 '오월광주'와 사람을 작품에 담으며 희망을 그려 온 이 작가를 초대했다. 판화, 회화, 설치 등 작품 40여점을 비롯해 아카이브 자료를 전시하며 예술세계를 전반적으로 조명한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이 작가가 가장 먼저 소개한 작품은 1984년 제작한 목판화 '인산'(人山)이었다. 시신더미를 무덤으로 형상화한, 말 그대로 '사람으로 쌓은 산'을 표현했다. 인상을 쓴 시신 표정과 검은색 배경은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고 있었다. "가장 애착이 가고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 작가는 다시 청년시절로 돌아간 듯 무거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산'을 수백배로 확대해 유화로 그린 작품(292×316㎝)도 볼 수 있다. 작가는 "날카로웠던 청년 시절보다 미적인 부분을 더 생각하며 작업했다"고 귀띔했다.

발걸음을 옮겨 '귀가' 작품 앞에 섰다. 1985년 제작한 이 작품은 5·18 당시 목격했던 수레에 시신을 싣고 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인산'과 '귀가'에는 공통적으로 초승달이 등장한다. 이씨는 "미완의 느낌이자 정(靜)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과 함께 판화 원판, 신문스크랩을 배치해 다양하게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판화 작품은 5·18 이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멕시코, 중국 판화를 보며 독학했죠. 여러장을 빨리 찍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을 빠르고 널리 전달하는 데 유용했죠."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어디선가 풍경소리가 들린다. 5전시실과 6전시실 사이에 설치작품 '오월의 소리'를 조성했다. 캄캄한 텅 빈 공간에 실제 풍경을 매달아 놓았다. 한켠에서는 오월 사망자 명단 발표, 도청 사수 내용이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다.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오월정신'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건네는 작품이다.

6전시실에서는 대표작으로 꼽히는 '화엄(華嚴)광주' 연작을 볼 수 있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제작한 7점으로 황지우 시인의 시 '화엄광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수백개 칸으로 이뤄진 대작으로 이한열 열사 등 인물과 운주사 불상·탑을 그려넣었다. 캔버스 가장자리를 빨강, 노랑, 초록, 파랑띠로 설정해 단청 분위기를 표현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씨는 '오월광주'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로 '화엄'을 선택했다. 그때 당시 아픔과 희생이 언젠가는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담았다.

또한 '오월'를 주제로 한 작품 이외에도 희망이 사라진 농촌을 표현한 '붉은 대지의 노래', 미국 제국주의를 풍자한 'War Game' 등도 전시한다. 전시 메시지는 결국 사람이 희망임을 알려주는 '당신이 희망입니다'에서 강하게 느껴진다.

이씨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예술가는 시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시기는 다시 '인산'을 제작해야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창극 '나비야 청산도 가자' 공연

장보고 일대기 그린 작품
25·26일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해상왕' 장보고의 이야기를 담은 창극이 관객들을 만난다. 각종 문헌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신화적 상상력을 더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은 장보고의 고뇌, 이상향 청산도의 꿈과 사랑을 그린 창극 '나비야 청산도 가자'를 무대에 올린다. 25일 오후 7시, 26일 오후 5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완도 청산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창극 '나비야 청산도 가자'는 한 시대를 평정했던 영웅 장보고의 모습뿐 아니라 보통사람이자 평범한 아버지였던 장보고의 모습도 함께 그려냈다.

주 내용은 동아시아 무역의 새로운 역사를 쓴 해상왕 장보고가 신라 왕실과 염장의 계략으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완도 까투리섬 설화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장보고의 딸 나비와 경응의 시공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가 더해져 흥미를 더한다.

가·무·악(歌·舞·樂)이 멋진 앙상블을 이루는 이번 공연의 주인공 장보고 역은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단원 박춘맹씨가 맡았다. 그밖에 나비 역의 임서연, 김우징 역의 양신승, 김경응 역의 최윤석씨 등 모두 90여명의 단원들이 출연해 호흡을 맞춘다.

전남도립국악단의 '나비야 청산도 가자' 연습 모습.

예술총감독 및 지휘는 유장영 예술감독이, 작품 연출은 창극 '대춘향전', '적벽가', 오페라 '카르멘' 등을 연출한 박병도 전주대 교수가 맡았다.

대본은 '푸르는 날에'로 차범석 희곡상을 수상하고 '카오스의 거울', '루미오와 소리엣', '목포는 항구다' 등을 쓴 정경진 작가가 집필했으며 작곡·편곡·작창은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메디아' 등 화제작을 만들어온 황호준씨가 맡았다. 안무에는 광주여대 박선욱 교수가 참여했다.

티켓 가격 일반 1만원, 20명 이상 단체 7000원, 초·중·고생과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5000원. 예약은 티켓링크(1588-7890)에서 가능하다. 문의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혼의 길' 정경래 개인전

24~30일 양림미술관

캔버스, 나무판, 천, 쌀알. 다양한 오브제로 끊임없이 작품에 변화를 주고 있는 정경래 작가가 '영혼의 길'을 주제로 24~30일 양림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남도 사람, 풍경, 길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캔버스에 회죽, 아크릴, 유채 등을 혼합해 자동차와 도로를 그린 '영혼으로의 여행'은 이번 전시 주제를 드러내는 대표적 작품이다. 지난 전시에서 황토길을 등장시켰던 작가는 최근작에서는 자동차와 회색빛 도시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자동차가 달리는 길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영혼을 찾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꽃과 함께 여성을 그린 '봄날', '비 오는 날에' 등은 캔버스 위에 쌀알을 부착시켜 독특한 질감미를 보여준다.

그밖에 가슴 속 이상향인 어머니를 캔버스에 담은 '빼앗긴 봄', '슬픔 없는 이별'도 전시한다.

'영혼으로의 여행'

정씨는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광주, 서울, 부산, 제주 등에서 개인전 12회, 단체전 수십회를 가졌다. 현재 소나무회, 아트펀, 현대인물작가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675-700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